



고진영

# 세계랭킹 1위 고진영도 출격 국내파 vs 해외파 대결 후끈

KLPGA 롯데 칸타타 오픈 내일 개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솔레이어)까지 가세한다.

KLPGA 투어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이 오는 4일부터 나흘간 제주도 롯데스카이힐 제주에서 개최된다.

KLPGA 투어는 지난 5월 중순 KLPGA 챔피언십, 5월말 E1 챔피언십 오픈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세계 골프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 대회에는 고진영이 약 8개월만에 국내투어에 출전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휩쓴 고진영은 현재 여자골프 최고의 스타다. 2019년 메이저대회 2승을 비롯해 4승을 수확한 고진영은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 최저타수상 등 주요 타이틀을 독식

했다.

관건은 고진영의 실전 감각이다. 지난달 박성현과 일대일 매치플레이를 치르기도 했지만 이벤트 대회였기에 정규투어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다행스러운 점은 오랜 공백에도 샷감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LPGA투어 시즌 최종전 CME 투어 챔피언십 이후 처음 대회에 나선 고진영이었지만 정교한 샷은 여전했다.

고진영이 가세하면서 이번 대회에서는 LPGA투어 선수들과 국내 선수들의 우승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고진영을 필두로 세계랭킹 6위 김세영(27·미래에셋), 10위 이정은(24·대방건설), 13위 김효주(25·롯데) 등 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 나설 예정이다.

US 여자오픈을 제패한 지은희(34·한화

큐셀)와 최나연(33·대방건설)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선수 중에서는 E1 챔피언십 오픈 우승자 이소영(23·롯데)과 KLPGA 챔피언십 챔피언 박현경(20·한국토지신탁) 등이 눈에 띈다. 두 선수는 LPGA투어 스타들이 출전한 첫 두 번의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국내 일인자 최혜진(21·롯데)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최혜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효성챔피언십부터 지난 E1 챔피언십 오픈까지 모두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 후원사 대회인 만큼 최혜진의 시즌 첫 승에 대한 각오도 남다르다.

또한 KLPGA 챔피언십 2위, E1 챔피언십 오픈 3위 등으로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임희정(20·한화큐셀), 지난 시즌 신인왕 조아연(20·블랙), 장하나(28·BC카드), 신인으로 지난주 준우승을 차지한 유해란(19·SK네트웍스) 등도 주목해야 한다.

뉴스1

음주운전 물의 '강정호 복귀' 움직임에 쓴소리

## 이순철 위원 "KBO 총재는 뭐 했나"

이순철 SBS 해설위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정호에게 사실상 복귀 길을 열어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순철 위원은 지난 1일 방송된 SBS스포츠 '주간야구'에 출연해 강정호의 복귀를 두고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KBO상설위원회가 1년 유기실격과 300시간 봉사활동 징계를 결정, 키움 히어로즈가 강정호 영입을 고심하게 된 사안을 두고 "KBO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공을 팀에게 떠 넘겨 버렸다"고 말했다.

이순철 위원은 "강정호 개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KBO가 일을 잘못 처리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면서 "(이런 식이면)전체적으로 리그를 관장하고 있는 KBO가 하는 일은 뭔가? 총재는 뭐 하고 있나?"라고 KBO의 결정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동요가 있으면

컨트롤하기 위해 수장이 있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면서 이 사태가 됐다. KBO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강정호가 귀국 인터뷰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 위원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이 문제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도 논란이 커졌으면 커졌지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안경현 해설위원 역시 강정호의 복귀 가능성이 두고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강정호가 복귀한다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한이(은퇴), 강승호(SK)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인생에서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용서하기 힘들다. 개인적인 생각은 (강정호 복귀) 안 된다고 본다"고 솔직한 생각을 전했다.

## 강진군 청자배 남·여 배드민턴 동호인대회 개최

게이트볼, 등산 대회 개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창출



스포츠 메가로 주목받고 있는 강진군에서 오는 5일 개최되는 '2020 강진청자배 남·여 배드민턴 동호인 대회'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스포츠 대회가 열린다.

2020 강진청자배 남·여 배드민턴 대회는 강진군체육회와 강진군배드민턴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이다.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약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며 열린 경쟁 속에서 서로의 실력을 점검하며 화합을 다질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맞춰 대회 전 및 후에 대회장 환경 정비

및 소독,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 당일 체온측정, 방역복 및 방역 대장 착용 등 철저한 사전방역 작업과 더불어 진행된다.

이어 오는 26일에는 '제20회 강진군수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가 개최된다. 대회는 강진군체육회와 강진군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한다. 강진종합운동장 내 게이트볼 구장에서 약 24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6월 28일에는 '2020 강진명산 생활체육 동호인 등산대회'가 열린다. 강진군체육회와 강진군산악연맹이 주관하는 '2020 강진

명산 생활체육 동호인 등산대회'는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약 250여 명이 군동면 금곡사 벚꽃공원에 집결해 보은산, 비파산, 오봉산을 등산하면서 관내·외 동호인들간 친선 교류를 도모하게 된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진행되는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시작해 힐링, 문화, 건강 3가지 코스로 진행된다. 각각 철새도래지, 다산박물관, 가우도 출렁다리 입구 등을 다녀오는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이다.

가족과 연인이 함께 자전거로 강진의 명소를 순회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은 지속적인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 올해부터 1인용 1천 원, 2인용 2천 원으로 이용을 유료화했다.

이승욱 군수는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 각종 스포츠 대회 및 프로그램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가운데, 스포츠 마케팅과 결합된 체육형 관광을 육성해 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김연경, V리그 돌아오나?

이재영·이다영과 한 팀에? 현실적인 가능성은 'YES' 흥국생명 "선수 의지 중요"



이재영(24)이 리시브를 받고 이다영(24·이상 흥국생명)이 올린 공을 김연경(32)이 때리는 모습을 V리그 코트에서 볼 수 있을까. 국가대표 팀에서나 가능했던 광경을 국내 배구 팬들이 겨울 코트에서 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김연경 측에 따르면 터키 프로배구 예자시바시와 2년 계약이 끝난 김연경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논의 중인 가운데 V리그 복귀도 타진하고 있다.

김연경은 2005~2009년까지 흥국생명에서 뛰던 뒤 JT 마블러스(일본)를 거쳐 2011년 터키 페네르바체로 떠났다. 이후 중국 상하이를 거쳐 이번 시즌까지 예자시바시에서 뛰었다.

한국에 오게 된다면 무려 11년 만이다. 현재 김연경은 흥국생명에 임의탈퇴로 묶여 있는 상태다. 2013년 7월 임의탈퇴 공시됐고, 귀국에 돌아오더라도 흥국생명으로부터 복귀가 가능하다.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에 따

르면 김연경 측은 지난해 12월 국내 복귀에 대해 질의했고, 흥국생명으로만 복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연경 측은 "한국에 꼭 돌아온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다. 만약 한국에 복귀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지 정도를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 관계자도 "에이전트가 (복귀를) 질의했던 시점은 지난해로 담당자가 안부 차 연맹을 방문했다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다. 최근 이야기가 오간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대화를 했던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해당 구단인 흥국생명은 조심스럽다. 김연경의 복귀 이야기에 반색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선수 본인의 V리그 복귀 의사가 분명하면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 기성용-이강인에게 뭘 기회 온다

프리메라리가 뻘뻘한 일정...로테이션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멈춰 있던 유럽축구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독일 분데스리가가 이미 무관중으로 진행 중이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17일부터, 이탈리아 세리에A는 20일부터 재개한다. 그리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가 보다 빠른 12일부터 새 출발한다. 팬들이 그리워했던 기성용과 이강인이 뛰는 모습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라리가 사무국은 지난 1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2019-2020시즌 재개 일정을 발표했다.

일종의 재개막전 같은 경기는 12일 오전 5시 펼쳐지는 세비야와 레알 베티스의 '세비야 데비'다. 이강인이 속한 발렌시아는 13일 오전 5시 레반테와의 경기로 리그를 다시 시작하며 하루 뒤인 14일 오전 5시에는 기성용 그리고 일본인 구보의 소속

팀인 마요르카가 리그 선두 바르셀로나와 맞대결을 펼친다.

일단 28~29라운드, 2개 라운드 일정부터 확정해 알렸다. 이 같은 결정의 이유까지 설명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도 조심스럽다는 방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부터 중단된 라리가가 현재 11라운드를 남겨 놓은 상태다.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총 110게임을 소화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재개 후 중단 혹은 종료라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격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일정은 '강행군'을 불사해야 한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리그를 끝내야 한다 게 라리가 사무국의 복안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해야 하는 까닭이다.

## 박지성, 단 3시즌만 뛰고도 J1교토상가 역대 최고선수

박지성(39)이 단 3시즌만 활약하고도 일본 J2리그 교토상가의 역대 최고 선수에 뽑혔다.

일본 축구 매체 사카다이제스트웹은 2일 J2리그 팀의 역대 최고의 선수를 선정했다. 교토상가 최고의 선수로는 박지성이 선정됐다.

사카다이제스트웹은 "박지성은 교토상사 시절 2002 한일 월드컵에 출전했다. 또한 2002년 일왕배 결승전에서 동점골을 넣는 등 팀의 우승에 기여했다"고 박지성의 활약상을 되돌아봤다.

박지성은 지난 2000년 6월 교토상가과 계약했다. 교토상가에서 J1리그와 J2리그를 오가며 박지성은 총 85경기에 출전, 12골을 터뜨렸다.

이후 박지성은 2003년 1월 거스 히딩크 감독의 부름을 받고 네덜란드 명문 PSV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했다.